

예멘 반정부 시위의 진행 현황과 전망

1. 예멘 개요

- 인구: 2,360만 명
- 면적: 53만km² (한반도의 2.4배)
- 종교: 이슬람교 (수니파 53%, 시아파 47%)
- 정치 체제: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
 - 살레는 1978년 쿠데타를 통해 북예멘 대통령이 되었고, 1990년에 통일 예멘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33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음.
 - * 예멘은 회교주의 북예멘과 사회주의 남예멘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90년에 동서 진영의 화해 분위기 등에 힘입어 통일되어 예멘공화국으로 출범하였음.
 - * 살레는 1999년에 이 나라 최초로 실시된 국민 직접선거에서 대통령(임기 7년)에 당선된 후 2006년 9월 대선에서 재선(임기만료 2013년)에 성공하였음.
- 의회 제도: 양원제 및 복수정당제
 - 양원제: 슈라평의회 111석(상원에 해당, 대통령 임명), 하원 301석(선거로 선출)
 - * 하원의원(임기 6년) 선거는 당초 2009년 4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정 선거 보장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2년간 연기되어 2011년 4월 27일에 실시될 계획이었음. 그러나 최근 반정부 시위로 정부는 총선 연기를 발표하였음.

- 복수정당제: 22개 정당이 있으나, 여당인 국민의회당(General People's Congress: GPC)이 하원 전체 의석의 80%인 240석을 차지하고 있음.
- 대외관계: 미국과 우호 관계 유지 및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와는 점진적인 관계 개선
 - 예멘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관련 혐의자와 과격 세력을 체포하는 등 미국의 대 테러 전쟁에 적극 협조하고, 미국은 예멘에 대한 대 테러 군사원조를 강화하는 등 양국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 * 2010년에 미국은 예멘이 알카에다의 새로운 테러공격 기지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9년보다 2배 증액된 1억 5천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음.
 - 1991년 걸프전에서 예멘이 이라크를 지지하여 GCC 국가와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이후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 예멘은 2000년 사우디아와의 국경협정 체결, 쿠웨이트 내 대사관 설치 등을 통해 대 GCC 관계 개선에 주력해 왔으며, GCC 회원국들도 2006년 11월에 런던에서 개최된 원조국 회의에서 예멘에 27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예멘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 왔음.

2. 시위 사태의 배경

- 살레 대통령은 1978년 북예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33년 동안 예멘을 통치하고 있음. 이 집권기간은 리비아의 카다피(Muammar Qadhafi) 국가원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기간임.
- 2011년 1월 1일에 예멘 의회는 대통령 3선 금지조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4월에 실시기로 의결함에 따라 야당과 국민의 반발을 초래하였음.
- 개헌안 의결에는 여당만이 참여하였고, 야당은 개헌안이 살레의 종신 집권은 물론 대통령직의 세습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함. 야당은 살레 대통령이 장남인 아흐메드(Ahmed Ali Saleh)를 후계자로 육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1인당 GNI가 1,060달러에 불과하고 인구의 43%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심한 빈곤, 35~4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만연한 부정부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잠재되어 왔음.
-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이 성공한 데 영향을 받아 살레 대통령의 퇴진, 생활수준 향상,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로 표출

3. 시위사태 진행경과

- '11. 1. 16 수도 사나(Sanaa)에서 튀니지의 대통령 축출을 지지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 발생
- '11. 1. 23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1명 사망 및 시위 주동자 체포 등으로 사태 악화
- '11. 2. 2 살레 대통령은 임기 연장, 대통령직 세습 등의 추진을 중단 하겠다고 발표
- '11. 2. 3 미국 정부가 살레의 개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지속
- '11. 3. 18 보안군의 발포로 시위대 50여 명이 사망하였고,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 '11. 3. 21 일부 군 세력(육군 제1기갑 사단장 등)이 시위대 지지 표명
- '11. 3. 22 유엔 주재 대사, 문화부 장관 등 일부 고위인사가 사임하고, 살레 대통령 소속 부족으로 예멘에서 가장 큰 하셰드 (Hashed) 부족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
- '11. 3. 29 살레는 권력을 과도정부에 이양하되 총선 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권은 즉각 퇴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

- '11. 3. 30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 거부로 수도 사나를 비롯한 예멘 전역에서 수십만 명 규모로 반정부 시위 지속

4. 전망

□ 살레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한 상황

- 살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헌법의 틀 안에서만 조기 퇴진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이양 방법과 퇴진 시기, 퇴진 후 거취 등에 대해 야권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기 퇴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3월 18일 보안군의 강경진압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2013년까지 임기를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미국도 반정부 시위 지지로 입장 선화

- 미국은 그간 정부의 시위 강경진압을 공식 비난하거나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보안군의 발포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자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화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살레의 퇴진 시 예멘을 신흥 거점으로 하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활동 억제 등 대 테러작전의 연속성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왔음.
- GCC가 예멘 사태의 중재를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예멘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며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우디도 살레 대통령의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퇴진 이후 자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치·사회적 혼란 심화 가능성 높아

- 살레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살레를 대신할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 살레 퇴진 이후에도 정치·사회 혼란이 심화되고 치안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지방 부족, 남부 분리주의자, 북부 시아파 반군세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합할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는 결국 정부의 국가 통제력을 약화시켜 지역·부족별 권력다툼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 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 시위 진압을 위한 정부 병력의 분산 등으로 알카에다의 공세가 강화되어 치안도 악화되고 있음. 정부는 남부 4개 지역의 통제력을 상실했고, 2011년 3월 남부 무기공장 폭발 사고로 100여 명이 사망하였음.
 - 또한 통일 이전의 남·북 예멘으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남부 분리주의자들의 활동 강화로 남·북 예멘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평화적이고 합의에 의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군과 시위대 충돌로 내전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아흐마르(Ali Mohsen al-Ahmar) 육군 제1기갑 사단장 등이 이끄는 일부 병력이 시위대를 보호하면서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된다면 내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음.

□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원유의 점진적 고갈, 수자원의 부족, 치안 불안에 따른 외국인투자 부진 등에 이번 반정부 시위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혼란이 겹쳐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예멘은 원유의 확인매장량 27억 배럴, 생산량 일 30만 배럴인 산유국이나, 유전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을 경우 12년 내에 원유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농업이 총인구 중 약 3/4의 직·간접 소득원으로서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빠른 인구 증가로 농업 용수가 크게 부족하여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음.
- 미국, GCC의 대규모 경제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치안 불안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의 자금 집행률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알카에다의 활동 강화 등으로 치안 불안이 가중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LNG 수출 증가에 힘입어 6%대에 달하였으나, 2011년에는 3%대 수준으로 낮아지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GCC의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붕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

- GCC는 시위 전부터 예멘의 경제적 붕괴를 크게 우려하여 경제 지원을 강화하여 왔음. 2006년 11월 런던의 원조국 회의에서 27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 2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였음.
- GCC는 예멘이 GCC 회원국은 아니나 예멘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경우 주변 GCC 회원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 GCC는 최근 반정부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레인과 오만에 각각 10년에 걸쳐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책임조사역 박 대 원(☎ 02-3779-5723)
E-mail: parkdw@koreaexim.go.kr